

예술가 소설로 본 『바베트의 만찬』*

진 명 희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아이작 디네센의 예술적 욕망 구현
- III. 끝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바베트의 만찬』(*Babette's Feast*)은 아이작 디네센(Isak Dinesen, 1885-1962)의 『운명의 일화』(*Anecdotes of Destiny*)(1958)에 수록된 중편으로, 경제 형편상 원고료를 많이 주는 미국대중잡지에 글을 신고자하는 디네센에게 “음식에 관해 써라... 미국인들은 음식에 사로잡혀있다”고 영국인 친구 조프리 고러(Geoffrey Gorer)가 해준 충고에 따라 구상한 희극적 작품이다. 이 작품은 처음 목표한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지에서 거절당하고, 『굿 하우스 키핑』(*Good Housekeeping*)지에서도 ‘고소득층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퇴짜를 맞은 후, 『레이디즈 홈 저널』(*Ladies' Home Journal*)에 보내어 1950년 6월호에 가까스로 실렸다(Thurman 329-30).

여러 번 거절당한 작가의 내적 고충을 보상하듯, 『바베트의 만찬』은 좋은 반응을 얻으며 고국 덴마크에서 1950년 11월 라디오 방송극으로 각색되어 발표된 후, 1952년에는 책으로 발간되어 인기를 끌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마드(Fremad) 출판사에서 값싼 포켓사이즈 판본으로 마치 크리스마스카드처럼 선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작품은 10만권이나 팔려 덴마크 서적상조항으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다(Thurman 431, 374). 「바베트의 만찬」은 1987년 가브리엘 악셀(Gabriel Axel)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일반대중에게는 그녀의 자전적 소설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와 함께 영화로 더욱 친숙하게 알려져 있다.

먼저 영어로 글을 쓰고 같은 작품을 모국어로 새롭게 쓰는 덴마크 작가 디네센은 1954년과 1957년 두 번 연속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1954년 수상자인 헤밍웨이는 수상연설에서 이 상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균형 잡힌 자세와 지적 교양(poise & sophistication)을 갖춘 아름다운 작가 아이작 디네센”이 받아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Dinesen, *Daguerreotypes* xii). 헤밍웨이의 이런 발언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아이작 디네센은 영미문학계에서 주변부 작가로 인식되어왔다. 이것은 유진 월터(Eugene Walter)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주듯이 디네센이 ‘이야기에 충실한 ... 이야기꾼’, 세에라자드와 같은 천부적인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원했기 때문이다(Walter, "The Art" 59). 이점에 있어서는 덴마크에서 태어났으나 20대 후반 아프리카로 건너가 광활한 대자연과 순박한 원주민들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살아온 디네센의 전기적 삶의 영향이 크다. 디네센은 사촌인 스웨덴남작 브로흐 브릭센-프릭케(Bror Blixen-Fricke)와 1913년 약혼 후 다음해 아프리카로 그를 찾아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매독에 옮겨진다. 남편과 별거 중 1918년 미국인 데니스 핀치 해턴(Denys Finch Hatton)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며, 별거중인 남편과 1925년 이혼한다. 1931년 데니스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케냐의 커피농장도 망하게 되자 디네센은 덴마크로 돌아와 남동생 토마스(Thomas)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와 살며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1946년 매독의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수술 후 잘 팔릴 수 있는 작품으로 구상한 「바베트의 만찬」은 60증반에 들어선 디네센의 육체적 고통을 ‘한 편의 인쇄물’¹⁾, 즉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작업이었다. 작가는 따뜻한 감동과 환상

1) Isak Dinesen, *Daguerreotypes and Other Essay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196. 디네센이 20세에 잡지에 실은 단편이야기들을 읽은 비평가 발데말 베델(Valdemar Vedel)이 계속 글을 쓰라고 격려하자 그녀는 단순한 인쇄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바 있다. 그녀는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에게 그랬듯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령을 감동시키듯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랐다.

적인 즐거움과 운명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바베트의 만찬」을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아니라 플루트를 연주하듯이” 가벼운 작품으로 의도하였다고 주장한다(Langbaum 245). 작가가 “나는 종종 희극적 감각을 의도하며, 농담을 사랑하고, 유머러스한 것을 사랑한다”고 밝혔듯이(Walter, "The Art" 56), 「바베트의 만찬」은 표면상으로는 가볍고 희극적인 운명의 일화로 보이지만 바탕에 심오함을 감추고 있는 작품이다. Judy Thurman에 따르면 이 증편은 디네센의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코미디중 하나”이며(329), 로버트 그로버(Robert Glauber)의 평에 따르면 “디네센의 최상의 작품”(Brantly 182, 재인용)의 반열에 놓인다.

비록 묘비명으로는 결혼 후 남편부인의 이름인 카렌 브릭센(Karen Brixen)이 새겨져 있지만, 디네센이 자신의 필명으로 ‘웃는 자’(the one who laughs)라는 의미의 헤브라이어 “아이작”을 사용했음은(Thurman 5), 스스로에게 여성이라는 굴레를 씌우지 않으며 또한 평생 병으로 고생한 자신에게 마치 유머와 농담과 웃음으로 삶을 관조하도록 최면을 걸고자하는 의도인 듯하다. 한 인터뷰에서 “인간은 살려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고 말한 디네센은 상상력의 창조적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느꼈으며, “충분히 매력적인 환상이 창조될 수 있다면, 현실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한다(Brantly 5, 재인용). 당시 유행하던 페미니즘에 대해 20대에는 가장 혁신적인 운동으로 동조하던 것과 달리, 50대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코 자진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태도를 바꿨지만(*Daguerreotypes* 65), 디네센은 군장교이며 작가였던 아버지와 덴마크 여성참정권에 참여했던 어머니처럼 반항아 기질을 타고나 내면에 ‘과격하고 자유롭고 현대적인’(Thurman 173) 주체성을 지닌 작가였다. 따라서 그녀는 “후기구조주의와 페미니즘의 ... 예언자”(Aiken x)로 까지 평가되며, 딸린 바(Marleen Barr)는 이 작품을 “페미니스트 예술형식과 페미니스트 사회구조를 존경하는 운명에 대한 일화”로 분석한다(28).

디네센이 고국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 덴마크 문학 경향은 ‘사회적 리얼리즘’으로, 디네센에게 “리얼리즘은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Brantly 4). 오랫동안 떠나있던 고국 덴마크의 보수적이며 적대적인 문학 풍토와 이방인이며 외국인의 처지에 불과한 영미문학계에서 작가의 외로운

한계적 삶의 특성은 작품 내면에 스며들어 표면적으로는 그저 재미있는 음식 이야기를 다룬 소품 같은 작품을 피할 수 없는 한 운명의 일화를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든다. 비평가 메르 몰랭(Maire Mullins)은 “신의 은총의 변형력이 주요 모티브”로 “갱생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작품으로("The Gift" 279, 296), 사라 굿윈(Sarah Goodwin)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실패한 유토피아 기대에 대한 희망적인 논평”으로(13), 사라 스탬버(Sara Stambaugh)는 신과 같은 예술가인 여성을 중심으로 삶을 거부하는 기독교적 가치와 디오니소스 가치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며 “정신에 이르는 길은 육체를 통해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작품으로 「바베트의 만찬」을 평가한다(79-80). 또한 앤 고스만(Ann Gossman)은 이 중편을 “자신을 인식하고 보기에 적대적인 운명에 맞서 투쟁하고자 노력하는 예술가를 묘사하는”작품으로 분석한다(326). 일반적으로 「바베트의 만찬」에 관한 논문은 조이스의 에피파니처럼 강한 마술적 힘을 드러내는 12명이 모인 만찬에 의미를 두어 기독교적 측면에서 신의 은총과 자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나, 여성예술가로서 바베트가 이뤄내는 성취와 화합에 의미를 두는 페미니즘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녀가 존재했던 어느 곳에서나 사실상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던 작가 자신의 상황을 투영한 인물 바베트를 통해 “예술가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내버려두라”는 디네센 자신의 절실한 갈망과 염원을 전달하는 예술가 소설로 「바베트의 만찬」을 분석한다. 파리코뮌에서 추방된 혁명적 행동가이자 하녀이며 천재 요리사로서 예술가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마술을 행하는 마녀인 바베트는 스스로 “나이 삼천 살로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했던 이야기꾼”(Walter, "The Art" 57)의 역할을 좋아했던 작가 디네센의 분신이다. 작품에서 가장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 바베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복권 당첨금 만 프랑을 모두 사용한 성찬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인물들의 화합과 사랑을 일깨우며 삶의 연륜과 예지를 지닌 예술가의 힘을 발휘한다. “전복적인 여성의 잠재력과 창조력을 지닌 인물로 마치 여성작가와 유사한 재능을 지닌”(Aiken 80) 바베트가 성찬으로 마술과 같은 힘을 발휘했듯이, 디네센은 음식에 관한 가벼운 우화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킨 후 정밀한 독해로 내면의 핵심을 파고들도록 독자들을 매혹하는 위대한 작가로서

자신의 열망을 구현한다.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욕구나 포만의 경계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고귀하고 낭만적인 사랑”²⁾의 결정체인 바베트의 최상의 요리는 정신과 육체, 자아와 타아, 이상과 현실, 환상과 실재를 결합한다. 「바베트의 만찬」은 디네센이 정치나 종교나 이념이나 인종적 간극을 초월하고 육체적 고통을 뛰어 넘어 희극적 감각과 농담과 유머를 사랑하며, 즉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예술가로서 자긍심과 결의를 표현하고자 의도한 작품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야기 전체를 머릿속으로 구상한 후에 첫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Brantly 2, 재인용) 디네센은 자신의 대변인인 바베트를 통해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밝히며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과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

II. 아이작 디네센의 예술적 욕망 구현

각 장에 소제목을 붙여 12장으로 구성된 작품내용은 간략하다. 파리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의 일급요리사인 바베트는 1871년 파리코뮌³⁾에서 정부군의 바리케이드에 대적해 싸우다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유명 오페라 가수의 소개장을 들고 노르웨이 피오르드 지역의 작은 마을 베르레보그(Berlevaag)에 있는 두 자매의 집으로 도망 온다. 바베트는 독실한 루터파 기독교도인 두 자매를 위해 검소한 식사를 준비하고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가며 한여로서 12년을 보낸 후에, 친구가 매년 갱신해 준 프랑스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며, 고인이 된 목사의 탄생 100주년 기념일에 자신의 돈으로 식사를 준비하게 해줄 것을 부탁한다. 바베트는 두 자매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당첨금을 모두 써서 프랑스에서 음식 재료를 주문하며 마지막으로 위대한 예술가로서 창조력을 발

2) Isak Dinesen, *Anedotes of Destiny and Ehrengard* (New York: Vintage, 1985), 58.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이 판본에 의하며 괄호 안에 페이지 수만 표시함.

3) Eric O. Johannesen, *The World of Isak Dinesen* (Seattle: U of Washington P, 1961), 29. 요하네센에 따르면 디네센이 1870년대를 파리를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 참여하여 파리코뮌이 일어났을 당시에 파리에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책도 발간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휘한 프랑스 최고급 요리로 구성된 만찬을 만들어낸다. 엄격하게 금욕적인 기독교 신도들이 바베트가 준비한 훌륭한 만찬을 마치 평소 즐기던 음식처럼 아무런 감탄 없이 먹고자 노력하는 장면은 작품의 희극성을 극에 달하게 한다. 그러나 파리코윈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비극적 운명에 처했던 바베트가 마련한 최고급 와인과 음식은 아이러니하게 신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 화합과 기쁨의 장을 마련하며, 일종의 마술을 발휘하여 신도들 가운데 은총과 축복과 영교의 순간을 제공한다.

첫 장에서 피오르드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베를레보그 마을에는 마치 ‘장난감 마을’처럼 회색, 노랑, 분홍 등 다양한 색깔의 목조 가옥들이 웅기충기 모여 있으며, 이런 마을의 노란색 집에 지금은 고인이 된 루터파기독교 전파자인 목사의 나이든 두 딸이 살고 있다. 처녀시절부터 타고난 아름다움으로 못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두 자매는 평생 회색이나 검정색의 단정한 옷만 입으며,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한 세속의 쾌락을 거부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신도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디네센은 동화 속 마을 같은 이곳에서 바베트가 이뤄내는 위대한 예술가로서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젊은 시절 두 자매를 흠모하던 두 남자를 등장시킨다. 방탕한 생활로 빚더미에 얽혀 인근 마을 고모 집에 잠시 쫓겨 온 젊은 장교 로렌스 로벤히엘름(Lorens Lowenhielm)은 어느 날 장터에서 18살의 아름다운 처녀 마르티네(Martine)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마르티네는 로렌스 가문의 한 조상이 홀려 결혼했던 “노르웨이 산의 정령 홀드라(Huldra)”⁴⁾처럼, 로렌스에게 “순결하고 성스러운 빛에 감싸여 꿈속에서 보는 듯한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27)으로 나타난다.⁴⁾ 스스로 본성 안에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화합할 수 없는 로렌스는 결국 무능한 몽상가가 될까 두려워 “운명은 가혹한 것이며,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27)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큰 세계’에 나간 로렌스는 마르티네를 잊으려고 출세에 전념하여, 목사의 집에서 보고

4) Marleen Barr, "Food for Postmodern Thought: Isak Dinesen's Female Artists as Precursors to Contemporary Feminist Fabulators," *Feminism, Utopia, and Narrative*. Ed. Libby Falk Jones and Sarah Webster Goodwin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90), 23. 말린 바에 따르면, 마르티네 뿐만 아니라 바베트 또한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여성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이 정령과 유사하며, 바베트는 외국인으로 자매의 가정에 통합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들은 언행들을 사교계에서 가끔씩 경건하게 구사하며 품위 있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장군이 된다. 두 자매에게는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다시금 홀연히 사라져버린 잘 생기고 조용했던 젊은이”(28)로 남아있던 로렌스는 그 후 30년이 지나 다시 두 자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며, 베를레보그 세계와 바깥의 큰 세계 양쪽을 넘나드는 경험으로 바베트가 차려낸 만찬의 실질적인 진가를 아는 유일한 존재이다.

현재 왕실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인맥이 두텁고 도덕적이며 신의 있는 사람임에도, 로렌스는 자신이 열렬히 추구하여 이론 화려한 삶이 허망하다고 느끼는 우울한 상태에 빠져있다. 멋진 제복을 입은 장군은 황금색 꿩이나 공작 같은 흰칠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지만 내면의 행복을 느끼지 못함을 깨닫는다. 이제 나이 들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공허감에 빠진 장군은 조상 홀드라로부터 전해 온,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 능력’, 즉 ‘통찰력’을 갖기를 소망한다.

젊은 로렌스 장교는 집안에 내려오는 홀드라 전설을 두려워했으며 산으로 부르는 홀드라의 초대를 무시했었다. 그는 투시력이라는 재능을 확고하게 거부했었다. 나이 든 로렌스 로벤헤일름 장군은 하나의 작은 꿈이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밤이 되기 전에 어스름의 회색나방이 그를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장님이 정상인처럼 볼 수 있기를 갈망하듯이, 자신이 통찰력을 갖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52-3)

이와 같이 자신의 ‘불멸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단계에 다다른 장군은 영적 교류와 화합의 축제 장면에서 자신의 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로렌스 장군은 베를레보그로 썰매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오래 전 파리의 승마대회 우승 후 열렸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을 회상하며 맞은편에 앉았던 아름다운 귀족여인을 떠올리는데, 이는 마르티네의 얼굴로 겹쳐진다. 다시 목사관을 찾게 되는 장군은 30년 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던 식탁에서 오늘 밤은 자신이 대화를 이끌고자 작정한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함으로써 우

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식탁에서 좌중을 압도하려던 장군의 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시 침묵에 압도당한다. 항상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장군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찬 후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대변인”(60)처럼 30년 전 목사가 했던 “자비와 진리가 한데 모였으며, 정의와 축복이 입맞춤 했습니다”(60-61)는 말을 반복할 뿐이다. 천장 낮은 방에 대구요리와 물만 놓여있던 식탁을 예상했던 장군에게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천재 요리사가 차려 낸 만찬은 다시금 그의 말문을 막아버리며, 장군으로 하여금 계산되지 않은 마음의 진실을 토로하게 만든다.

바베트라는 위대한 예술가를 두 자매의 집에 데려오기 위해 디네센은 언니 마르티네와 로렌스가 헤어지고 1년 후 파리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아쉴 파팽(Achille Papin)을 동생 필리파(Philippa)의 연인으로 등장시킨다. 스톡홀름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잠시 휴식 차 노르웨이의 광활한 자연을 맛보기 위해 이곳에 온 아쉴은 우연히 교회에서 필리파의 노랫소리를 듣고는 로렌스처럼 ‘비전’을 보게 된다. 아쉴은 필리파에게 잠재한 거대한 예술적 재능을 알아채고, 가장 빛나는 디바로 떠오를 필리파와 노래 부르는 날 세상에 ‘기적’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기대에 차서 정열적으로 필리파에게 노래 수업을 한다. 오직 세속적인 성공을 기대하며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Don Giovanni*)의 2막 유혹의 듀엣 이중창을 부를 때 그는 필리파의 천상의 음과 목소리에 넋을 잃고 만다. 너무나 숭고하여 다른 어떤 말이나 몸짓을 할 수 없어 그녀의 손에 경건한 마음으로 입맞춤을 하였으나, 아쉴은 그것으로 필리파의 노래지도를 거절당하게 된다. 아쉴은 작품에 심취하여 돈 조반니가 체를리나에게 입맞춤한 대가로 위대한 디바를 잃게 된 ‘예술가의 운명’을 한탄하며 떠나게 된다. 바깥세상의 예술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아쉴은 통제되지 못한 격렬한 감정의 발산으로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예술가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작가가 아쉴을 “나이 사십에... 인정 많은 사람이며 스스로에게 정직하다”(29)고 표현한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⁵⁾ 이것은 필리파 스스로 세속적인 열정에 휘둘릴까 두려워 미리

5) Maire Mullins, "The Gift of Grace: Isak Dinesen's *Babette's Feast*," *The Gift of Story: Narrating Hope in a Postmodern World*. Ed. Emily Griesinger and Mark Eaton (Waco, Texas: Baylor UP, 2006), 285. 물랭은 “아쉴이 순간적인 격정이나

감정선을 절단하는 태도이며, 한편 플롯 상으로는 바베트를 자매들에게 보내기 위한 필요한 전략이다. 15년 후 아철이 바베트에게 들려보낸 다음의 편지 내용은 한때 최상의 자리에 올랐던 예술가의 삶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필리와 양, 15년 동안 당신의 목소리가 파리의 그랜드 오페라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애석해했소. 하지만 오늘 밤 즐겁게 사랑하는 가족에 둘러싸여 있을 당신을 생각하며, 한때 박수치며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잊혀 우울하고 외로운 지금의 내 처지를 생각하니,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오. 명성이란 무엇이오? 영광이란 무엇이오? 죽음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데! (34)

그러나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노래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천국에서 다시 들을 수 있으리라는 아철의 덧붙임은 디네센의 예술가로서 내적 욕망을 대변한다.

“하느님의 길은 사람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바다와 눈 덮인 산들을 가로지르고”(30) “강들을 가로 지른다”(31)는 목사의 말처럼 인간이 알 수 없는 운명의 신은 15년 후 아철의 소개장을 든 바베트를 두 자매의 집에 보내준다. ‘페트롤뢰즈’(석유로 집을 불을 지른 여자)로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풍부한 재능과 위엄과 진정한 자제력을 지니고 있다”(34)는 내용의 편지 끝에 아철은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안다”(34)라는 구절을 쓰고 있다. 개구리까지 먹는 프랑스 사람들의 요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자매는 파팽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이 먹는 대구 요리와 맥주와 빵을 넣은 수프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요리가 전부였던 바베트가 사치스럽게 먹는 것은 죄악이라는 자매의 말에 아무런 호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매의 요리법을 “완전히 무표정하게”(36) 바라보는 바베트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토박이 못지않은 요리 솜씨와 비용을 절감하는 살림 솜씨를 보이며, 그녀가 만든 수프와 빵은 가

기계적으로 대본에 따라 키스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하고 진심에서 우러나 키스한 것으로, 이것은 미래에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합일을 이루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살찌우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다.

처음 쫓기듯 불안한 모습으로 거지나 다름없던 바베트가 믿음직한 가정부가 되며 그들의 ‘정복자’로 판명되었다는 구절은 독자로 하여금 점차 바베트에 열중하도록 유도한다. 바베트는 가톨릭교도인 그녀를 개종시키고자 더욱 모범적인 루터교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매에게 정신적 자극제가 되며, 자신의 운명을 당당하고 엄정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도들은 바베트를 미심쩍은 ‘외국인 여자’에서 “아름다운 두 마리아 집에 사는 마르타”(37)로, 또한 주춧돌로 인정하며, 이 말없는 이방인을 보내준 것에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된다. 바베트가 언젠가 만 프랑 짜리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녀의 낡은 천 가방을 ‘마술 양탄자’처럼 생각하게 하며, 세발달린 주방의자에 앉아 아마도 요리서일 두꺼운 검은 책에 열중하는 모습은 삼각대에 앉아 있는 아폴로 신전의 무녀 피티아와 같은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디네센은 바베트가 ‘카페 앙글레’(Cafe Anglais)의 천재요리사의 실력을 다시 발휘한 만찬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동화나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독자에게 주입시킨다. 두 자매는 바베트 내면에 자신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정열과 추억과 열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하지만, 그녀의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열망은 전혀 상상치 못하고 단지 그녀가 파괴적 행동주의자인 ‘페트롤뢰즈’였다는 사실만을 연관 짓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아마도 바베트는 정말로 페트롤뢰즈였나봐”(38). 바베트가 주변사람들의 사랑과 감사를 받는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디네센은 복권 당첨이라는 우연성을 개입시키며 “정말로 진실 같지 않은 상황을 믿게 한다”(Gossman 323).

죽은 목사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자매는 신도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에 책임을 느끼며, 또한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데 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결혼까지 막았던 목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프란츠 한센(Frantz Hansen)은 목사가 자신의 딸들을 수족으로 한정짓는 이 구절은 치명적인 부모의 권위와 파괴적인 성직자 권위를 가장 격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64), 자매들은 “자기희생적이며 자비로운 천사들의 화신”(62)이라고 규정한다. 사라 굿윈은 자매들이 “상냥하고, 흠잡을 데 없는,

괴상한 수동성”(16)을 지녔다고 비판하며, 브루스 배썃(Bruce Bassoff)은 자매들이 가장이나 가식이 없어 칭찬할 만하지만 지각없이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피오르드 밖의 삶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얕다고 비난한다(386). 그러나 자매들이 지각이 없거나 생각이 얕아서가 아니라, 그녀들의 제한적인 특이한 환경과 배경이 오로지 신에 대한 섬김과 복종만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로렌스와 아셀이 보여준 행동은 마르티네와 필리파의 진정한 갈망과 행복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그들에 대한 자매들의 반응은 나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자매들에게 바베트의 만 프랑 짜리 복권 당첨은 바베트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권은 ‘불경’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자매는 한번만 진짜 프랑스 요리를 해보고 싶다고 12년 만에 처음 하는 바베트의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이 들어주게 되며, 이후 바베트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44)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12년 동안 자기표현의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바베트는 이제 예술가로서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다. 한 달 만에 걸친 바베트의 예술작업은 그녀에게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재료를 구하러가기 위해 “평생 가장 끔찍한 경험”(44)이었던 배를 타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자매들은 그 성격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녀의 예술작품에 쓸 재료들을 무사히 구하게 된 바베트는 “동화에 나오는 요술램프에서 나온 거인”(45)과 같이 인간의 마음에 마술을 행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 포도주에 이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마르티네와 같은 신도들을 위해 한수레나 되는 술병들과 초록빛을 띤 거무스름한 돌처럼 생겨 뱀 같은 머리를 쭉 내미는 바다거북과 같은 최고급 재료를 들여오는 바베트의 준비 작업은 신도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마르티네는 바베트가 아버지의 집을 “마녀의 연회장”(46)으로 만들며 독이 든 음식을 먹이는 꿈을 꾸며 두려움에 휩싸인다.

마르티네는 자기가 본 것을 차마 동생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필이면 바로 아버지 생일에 자신과 동생이 아버지의 집을 마녀의 연회장으로 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그

녀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베트는 나이든 형제자매들과 필리파와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있었다. (46)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창작에 전념하는 작가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반응과 비난을 독자들로부터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앞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심적 고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아버지가 상징하는 종교와 가정에 얽매어 창의력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에서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가 결코 될 수 없었던 두 자매에게 바베트의 작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협인 것이다. 이와 같이 걱정하는 자매들을 위해 신도들이 탄생축하 만찬 시에 음식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기로 동맹을 맺은 악 조건에서, 즉 작가에 대해 일종의 편견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술가는 외로운 작업을 완수하며 오로지 자신의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한 신도의 말처럼 아주 작은 신체 부분인 ‘혀’는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악이며... 치명적인 독이 가득할’(47) 수도 있다. 즉 예술가는 예술작품에 대해 독자나 비평가가 던지는 악평에 살인과 같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찬을 차려내는 예술작업을 하는 까무잡잡한 이방인 여인 바베트와 그녀를 보조하는 빨간 머리 소년은 마치 ‘마녀와 요정’처럼 부엌을 점령하고 식탁을 준비한다. 단지 “먹을 것을 소원하는 아이에게 돌이나 뱀을 주겠는가?”(50)라는 성경 구절에서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을 얻을 뿐인 자매들이나 신도들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는 로벤히엘름 장군의 우연한 등장이다. 장군의 등장으로 만찬을 먹는 신도의 숫자가 12명이 됨으로써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며 신의 존재의 현현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독자는 로렌스의 요리에 대한 감탄과 논평을 통해 요리의 진가를 알게 된다. 파리에서 수년간 살며 카페 앙글레 레스토랑의 최고급 요리를 맛본 장군이 만찬을 즐기며 놀라는 모습과 신도들이 맛있는 요리를 먹는 즐거움을 지극히 억제하는 희극적 상황은 극한 대비를 이루며 독자들에게 희극적인 장면을 상상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또한 메르 물랭이 지적하듯이 만찬 요리에 대해 장군이 보여주는 지식과 이해와 감상은 독자들을 위한 극적 장치인 ‘희극적 휴지부’(a point of comic relief)로 작용하며, 만찬 참석자들에게 만찬의 위대함을 주지

시키는 방식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Mullins, "Deeper Down" 29).

디네센은 바베트가 차려 낸 만찬을 “포도주로 신의 은총이 드러나던 가나의 혼인잔치”(55)로 묘사함으로써,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듯이 이 만찬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로벤히엘름 장군은 최상품 셰리주인 아몽티야도와 최고급 거북수프를 맛보며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대화를 주도하려는 이기적 노력이 궁정에서 성공했듯이, 먼저 목사의 설교모음집을 왕비가 애독했다는 얘기를 꺼내어 신도들의 주의를 끌지만, 빵에 캐비어와 사위크림을 얹은 블리니 드미도프 요리가 나오자 믿을 수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버린다. “따뜻한 전염성 유머를 지닌”(Hannah 149) 이 이야기에서 평소 식사 시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신도들은 마치 “혀가 풀린 듯이”(56) 목사에 관한 일화들을 나누기 시작한다.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처음으로 강이 쾅쾅 얼어붙는 기적이 일어나 피오르드 건너편 마을로 무사히 강을 건너 크리스마스 설교를 행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기적이 에피페니아 비전을 드러내는 바베트의 만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최상의 요리를 먹게 된 장군은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 없어 1860년산 뵈브 클리코 샴페인을 연거푸 마시며 썰매를 타고 오며 회상했던 파리에서의 만찬을 다시금 떠올린다. 카페 앙글레 식탁의 일행이었던 갈리페 (Gallifet) 대령은 그들이 먹던 메추라기 요리인 ‘카이유 영 사르코파쥬’ (Cailles en Sarcophage)를 당대 파리 제일의 ‘천재 요리사’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요리사가 ‘여자’라는 사실로,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피를 바칠 수 있을 거라는 갈리페 대령은 아이러니하게도 파리로된 시에 프랑스 육군 장관으로 반란군을 공격하였으며 결국은 바베트를 이곳까지 쫓겨 오게 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바베트의 예술적 재능을 찬미하고, 돈을 써가며 그녀의 예술성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 즉 바베트로 인해 완벽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한다. 갈리페 장군은 바베트의 요리를 먹으며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욕구나 포만의 경계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 고귀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요리의 가치를 아는 왕족이나 귀족들과 상류층 인사들에게 정신과 육체를 아우르는 희열을 주었던, 즉 사랑을 가져다주었던 바베트의 요리는 그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음은 물론 엄청난 재료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베를레보그의 신도들에게도 변화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잊고, 마음 속 앙금을 풀고 들뜬 기분으로 자매들이 일으킨 작은 기적들을 얘기하며 즐긴다. 하얀 눈이 내린 한겨울에 포도와 복숭아와 신선한 무화과를 먹는 일도 전혀 놀랍지 않은 일상적 행위로 진행된다. 이들은 장군의 연설 내용처럼 “조건을 달거나 특별히 어느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60)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바베트가 베푼 만찬을 통해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거부한 것도 역시 똑같이 부여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는 이들은 자기들이 열망하던 새로운 예루살렘에 도달한 상태로 묘사된다.

그날 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손님들 중 그 누구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수많은 작은 후광들이 합쳐져 하나의 거룩한 광채를 발하듯이 천상의 빛이 방들을 가득 채웠다는 것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말이 없는 노인들의 말문이 터졌고 수년간 거의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다. 시간은 점차 영원으로 합체되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 창문들이 황금처럼 빛났고, 아름다운 노래가 바깥의 겨울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다. (61)

로버트 랭바움 (Langbaum)이 지적하듯이 이 구절은 디네센의 작품 중 가장 확실한 에피퍼니 묘사를 보여준다(253). 말린 바에 따르면 바베트의 만찬은 초월적인 경험으로 개인적이며 종교적인 소통의 부활을 가져온다(25). 또한 메를 물랭이 평하듯이 변형, 재생, 치유의 수단이 되며, 공동체적이며 개인적인 양면에서 지속적 희망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한다(Mullins, "Deeper Down" 32). 이들이 “헛된 환상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본 모습 그대로 드러난 삼라만상을 보게 되는”(62) 축복을 받는 것은 디네센이 이야기꾼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최상의 기쁨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렌스 장군 또한 그곳을 떠나며 젊은 시절의 그와는 달리 은총이 무한하며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이라도 가능하다”(62)는 것을 배웠음을 마르티네에게

고백한다. 마르티네와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로렌스는 만찬에 모인 신도들을 새롭게 갱생시키며 자신의 과거와도 화합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받은 감동의 충격은 인간의 한정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해체시키며 정해진 규정 틀을 깨뜨리는 힘을 발휘한다. 인습적 사고와 범주에 갇혀 신앙과 이성만을 추구하며 살던 신도들은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쌓인 눈길에서 함께 어우러져 디오니소스 축제와 같은 신비로운 황홀경과 즐거움을 맞으며 재생의식을 치른다. 니체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조적인 특성인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당시 니체의 영향을 받은 디네센⁶⁾ 신도들을 위해 이성이 감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오니소스 축제, 또한 기존 틀에 대한 반란과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해방의 공간인 카니발축제와 같은 순간을 마련한다.

마침내 모인 사람들이 모두 밖에 나섰을 때 눈은 이미 그쳐 있었다. 마을과 산은 이 세상 것이 아닌듯한 순백의 광휘에 묻혀 있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길에는 걷기 힘들 정도로 눈이 잔뜩 쌓여 있었다. 노란 집에서 나온 손님들은 다리를 휘청거리며, 비틀거리고, 갑자기 주저앉거나 무릎과 손을 짚으며 앞으로 넘어지며 눈을 뒤집어썼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씻은 것 같았으며, 이렇게 되찾은 순결한 옷차림으로 어린 양들처럼 뛰놀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그들 각자에게 더없이 행복한 일이었다. 또한 언제나 아주 진지했던 나이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유년시절을 다시금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은 축복받은 웃음거리였다. 그들은 넘어졌다가 일어났고, 걷다가 조용히 멈춰 섰으며, 가꿈은 손을 맞잡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체가 되어 하늘이 내려준 축복 속에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63)

6) Susan Aiken, *Isak Dinesen and the Engendering of Narrative* (Chicago: U of Chicago P, 1990), 260. 디네센은 니체와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였으며 한때 자신의 멘토였던 덴마크 비평가 게오르그 브란데스(Georg Brandes)의 영향으로 니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한 순수함으로 육체와 영혼, 지상과 천국, 예술과 삶, 시간과 영원이 함께 녹아들어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신도들의 모습은 독자의 상상력을 가동시키며 작가가 의도한 환상적인 의미를 창출해낸다. 그러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 간 이들이 다음 날 폭설로 문이 막혀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잠만 잤다는 덧붙임은 그들이 누린 축제가 한낱 일시적인 꿈이 아니었나 하는 착각을 들게 한다. 사라 스탬버가 “디오니소스 축제의 사제이며 승리한 예술가”(80)로 칭하는 바베트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후 녹초가 되어 설거지 그릇들만 가득한 주방의 도마에 걸터앉아 있다. 만찬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지친 바베트의 모습은 실제로 「바베트의 만찬」 창작 당시 힘든 건강상태로 인해 종종 불러주며 받아 적도록 시켰던 디네센(Aiken 255) 자신의 지친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저녁에 먹은 것들도 기억 못하는 자매들은 카페 앙글레의 12인분 저녁식사는 재료비가 만 프랑으로 이제 돈이 없어 파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바베트의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마르티네는 아프리카 추장이 아끼는 첩의 목숨을 구해 준 감사의 표시로 어린 손자를 죽여 훌륭한 기독교 주술사인 선교사에게 식사대접을 했다는 얘기를 떠올린다. 바베트가 쓴 만 프랑은 한 사람의 목숨과도 같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리마돈나가 될 만한 재능을 지녔지만 신앙을 위해 자신의 자질을 무시했던 필리파 역시 모든 돈을 써버린 바베트의 충심과 희생을 안타까워한다.

바베트가 지닌 ‘위대한 예술가’의 자긍심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자매에게 바베트는 오히려 측은한 듯한 재미있는 듯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전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언가를 가졌어요”(67)라고 말한다. 평생 예술가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바베트는 12년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카페 앙글레의 12인분 저녁만찬을 준비하는 예술 창작과정에서 이미 기쁨과 축복과 은총을 충분히 누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예술가들의 만족감은 자신의 작품으로 감동받고 완벽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갖는 것이다. 파리의 카페 앙글레를 찾던 왕족과 귀족과 장군들과 같은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비록 사악하고 냉혹한 인간들로 바베

트로 하여금 동지들을 위해 총을 들고 적군이 되게 하였지만, 그녀의 예술적 가치를 찬양하며 그녀 손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진정한 예술가로서 디네센의 소망은 바베트를 통한 아של 파팽의 말로 표현된다. “예술가에게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박수를 받는 것은 끔찍하게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을 향해 예술가가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하나의 긴 외침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날 내 버려두라”(68)이다. 단지 최선을 다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외침은 사실 덴마크 문학계나 영미문학계 양쪽에서 이방인이며 주변인으로 인식되던 여성작가 디네센이 내면으로부터 뿜어내는 통렬한 절규이다. 작가로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파괴와 자기창조의 동시적 행동이듯이, 바베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성찬을 완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치 차가운 대리석 같은 바베트의 몸은 필리파에게 전율을 일으키며, 필리파는 아של 파팽이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바베트에게 속삭인다. “천국에서 바베트는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위대한 예술가로 남을거야!... 바베트는 천사들을 사로잡을 거야!”(68) 이 말은 경제적, 인종적, 성적인 어떤 고통이나 한계 없이 자신의 현실을 초월하여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예술에 전념하여 종교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이상에 도달코자 하는 작가의 소망을 담고 있다. 현세의 일시적인 ‘명성’이나 ‘영광’이 아니라 사후에도 영속적으로 독자를 사로잡을 예술가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디네센의 욕망은 파리의 천재 요리사였다가 불가피한 운명으로 베를레보그로 도망온 후 12년 만에 진짜 프랑스 요리를 완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천년지복의 환희를 느끼게 해준 바베트를 통해서 구현되었다. 즉 두 자매의 집에 바베트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디네센이 작가로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끝맺는 말

아이작 디네센은 삼천 살이 넘는 이야기꾼이고자 하는 태도 때문에 동시대

문학계에 어떤 특정한 경향과도 연관이 없는 작가로,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정형화된 문학양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디네센의 글쓰기는 작품 결미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화체로 마지막을 장식하며 세에라자드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열린 결말은 독자로 하여금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상상하게 만든다. “희극정신의 기질을 가진 작가들을 존경하는”(Walter, "The Art" 57) 디네센은 영향력 있는 대중잡지에 실릴 「바베트의 만찬」을 미국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음식을 소재로 하여 유머와 재미와 농담을 겸비한 가벼운 읽을거리로 의도했다. 그러나 프란츠 한센이 지적하듯이 이 작품은 “유쾌하면서도 심각한 이야기”(3)로 “상당히 깊은 저변에는 예리한 아이러니와 위험한 힘”(62)이 작용하는데, 이점이 작가의 역량을 드러내며 독자를 매료시킨다. 중편작품을 12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각장의 소재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듯이 써나가며, 디네센은 상상력의 창조적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예술적 열망을 달성한다.

‘천재 요리사’이며 ‘위대한 예술가’로서 어떤 시련에도 재능과 위엄과 절제를 잃지 않는 바베트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자비와 진리가 한데 모이고, 정의와 축복이 입맞춤하는 환희의 순간을 이루어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도망자이자 이방인이지만 마치 램프 속 거인처럼, 마녀처럼, 피티아 무녀처럼, 아프리카 추장처럼, 노르웨이 산의 정령 홀드라처럼, 두 마리아를 돕는 마르타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특징”(37)을 지닌 바베트가 이룬 ‘기적’은 디네센이 작가로서 이루고자 하는 예술적 소망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디네센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꾸며낸 「바베트의 만찬」의 희극적 내러티브를 통해 독자에게 가볍게 다가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준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 「바베트의 만찬」을 완성한 디네센은 수잔 에이킨이 지적하듯이 “모든 의미에서 자기소모적인 가공품인 - 내러티브가 됨으로써 필멸의 죽음에 도전하며, 자신의 죽어가는 육체를 말하는 텍스트로 변형시켰다”(255).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한 위대한 예술가의 운명의 일화를 들려주며, “영원한 인간의 신비가 결정화된, 나이를 알 수 없는 예언자, 시빌 Sibyl”(Walter, "Isak Dinesen" 47)인 디네센은 독자에게 위로와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마법을 행한다.

인 용 문 헌

- Aiken, Susan Hardy. *Isak Dinesen and the Engendering of Narrative*. Chicago: U of Chicago P, 1990.
- Barr, Marleen. "Food for Postmodern Thought: Isak Dinesen's Female Artists as Precursors to Contemporary Feminist Fabulators." *Feminism, Utopia, and Narrative*. Ed. Libby Falk Jones and Sarah Webster Goodwin,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90. 21–33.
- Bassoff, Bruce. "Babette Can Cook: Life and Art in Three Stories by Isak Dinesen." *Studies in Short Fiction* 27.3 (1990): 385–89.
- Brantly, Susan. *Understanding Isak Dinesen*.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2002.
- Dinesen, Isak. "Babette's Feast." *Anecdotes of Destiny and Ehrengard*. New York: Vintage, 1985. 21–68.
- _____. *Daguerreotypes and Other Essays*. Chicago: U of Chicago P, 1979.
- Goodwin, Sarah Webster. "Knowing Better: Feminism and Utopian Discourse in *Pride and Prejudice*, *Villette*, and 'Babette's Feast'." *Feminism, Utopia, and Narrative*. Ed. Libby Falk Jones and Sarah Webster Goodwin,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90. 1–20.
- Gossman, Ann. "Sacramental Imagery in Two Stories by Isak Dinesen." *Wisconsin Studies in Contemporary Literature* 4.3 (1963): 319–26.
- Hannah, Donald. *Isak Dinesen and Karen Blixen: The Mask and the Reality*. New York: Random House, 1971.
- Hansen, Frantz Leander. *The Aristocratic Universe of Karen Blixen: Destiny and the Denial of Fate*. Trans. Gaye Kynoch. Brighton: Sussex Academic, 2003.
- Johannesen, Eric O. *The World of Isak Dinesen*. Seattle: U of Washington P, 1961.

- Langbaum, Robert. *Isak Dinesen's Art: The Gayety of Vision*. Chicago: U of Chicago P, 1975.
- Mullins, Maire. "The Gift of Grace: Isak Dinesen's *Babette's Feast*." *The Gift of Story: Narrating Hope in a Postmodern World*. Ed. Emily Griesinger and Mark Eaton Waco. Texas: Baylor UP, 2006. 279-96.
- _____. "Deeper Down in the Domain of Human Hearts': Hope in Isak Dinesen's *Babette's Feast*." *Logos* 12.1 (2009): 16-37.
- Stambaugh, Sara. *The Witch and the Goddess in the Stories of Isak Dinesen: A Feminist Reading*. Ann Arbor: UMI Research P, 1988.
- Thurman, Judith. *Isak Dinesen: The Life of a Storyteller*. New York: St. Martin's, 1982.
- Walter, Eugene. "The Art of Fiction XIV: Isak Dinesen." *Paris Review* (Autumn 1956): 43-59.
- _____. "Isak Dinesen Conquers Rome." *Harper's Magazine* (Feb. 1965): 46-54.

Abstract

Babette's Feast as an Artist Story

Myung-Hee Jin

Babette's feast, one of Isak Dinesen's most deft and exquisite works, juxtaposes the self-sacrificing art of Babette's cooking with the health-harming art of the writer's creation. Babette's feast, in which the protagonist invests all her lottery money, signifies a kind of communion and an Easter mass which transubstantiate the table guests into new beings of joy and bliss. At the feast every participant experiences, if temporarily, a happy communion of self-extension and ecstasy. Babette's self-consuming feast alludes implicitly to the ideal reading experience through which the possible reader eats up every letter and leave of a book and nourishes him/herself on them. In this story, Babette's dainties are transformed into the writer's creation. Babette is the mouthpiece and double of Dinesen's integral creation and devotion. Both Babette and Dinesen let themselves eaten up by their self-enjoying consumers.

This feast of self-sacrifice is rather comic in that it enhances a sense of community based on communion. Through the feast every villager purges his/her repressed and silent past and comes into the light of talking and community. For this comic effect, the author employs such narrative techniques as fairy tales, fantasies and biblical allegories that transcend the boundary of verisimilitude. These narrative techniques provide the writer with a point of comic relief. So *Babette's Feast*, a fantastic product of Dinesen's imagination, is quite purely a comic and fanciful work, originally intended to be evanescently light as if played on a flute.

Key words: Isak Dinesen, Babette's feast, artist story, comic sense, communion.

아이작 디네센, 바베트의 만찬, 예술가 소설, 희극적 감각, 영교.

논문접수일: 2011. 11. 12

심사완료일: 2011. 12. 14

게재확정일: 2011. 12. 20

이름: 진명희

소속: 충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380-702)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충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mhjin@cjnu.ac.kr